

Rethinking Divine Language: Theological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of Inclusive Language

Eser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Objectiv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language used to describe God profoundly shapes learners' theological imagination and spiritual formation. It addresses the need for inclusive God-language in religious education settings, particularly within the Korean church context.

[Contents] Drawing on metaphor theory and the concept of the null curriculum, the study examines the formative effects of exclusively masculine images of God. It critically engages voices such as Sallie McFague (1987) and David Stewart (2010). Building on the ethnography research of Dave Csinos (2020), this study explores the concrete impact of language use on the formation of concepts of God through examples involving children, youth, seminary students' children, and the author's own experiences. Drawing on Elliot Eisner's (1985) theory of the null curriculum, the paper discusses the formative role of inclusive language in religious education. It further proposes age-specific pedagogical strategies that utilize diverse metaphors—such as light, wisdom, and a nurturing presence—to broaden theological imagination and engagement across generations.

[Conclusions] Inclusive God-language and imageries in religious education is not merely a semantic choice, but a vital tool for fostering just, participatory, and theologically rich learning environments where all learners can encounter and articulate the Divine.

[Keywords] Religious Education, Null Curriculum, Faith Formation, Language, Human Development

^{*} **Corresponding author** Eser Kim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mail : eserkim05@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언어와 영성 발달: 하나님 포괄적 언어에 대한 신학적 · 교육학적 성찰

김에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객원교수

요 약

[연구 목적] 하나님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언어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학습자의 신학적 상상력과 영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한국 교회의 교육 현장에서 포괄적 하나님 언어 사용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성경 및 전통 신학에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남성 중심 은유의 기원과 한계를 검토하고 샬리 맥페이그(Sally McFague, 1987)와 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Stewart, 2010) 등의 이론을 통해 다양한 하나님 표현의 정당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데이브 시노스(Dave Csinos, 2020)의 질적연구와 아이들과 청소년, 신학생 자녀 및 필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언어 사용이 신 개념 형성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탐색하고, Elliot Eisner의 영(null)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종교교육에서 포괄적 언어의 형성적 역할을 논의한다. 세대별 맞춤형 교육 전략을 통해 다양한 은유적 표현—빛, 지혜, 돌보는 존재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안한다.

[결론] 포괄적 하나님 언어는 정의롭고 참여적인 종교교육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영적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 교회 맥락에서 더 풍성한 신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종교교육, 영교육과정, 신앙형성, 언어사용, 발달심리학

I. 문제제기

하나님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언어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지 활동과 언어는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tewart, 2007: 305). 필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묻는 기회를 가졌고, 흥미롭게도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성별 대명사의 경향이 드러났다. 한 다섯 살 남자아이는 하나님은 “크고 사랑이 많은 남자”라고 답했고, 여섯 살 여자아이는 “하나님은 큰 남자지만, 때로는 모두를 안기 위해 큰 손을 가진 여자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인터뷰는 방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신성을 묘사하는 언어는 종교교육에서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묘사해왔고 그 묘사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따라서 북미에서는 성별 중립적 언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영어에서의 남성 대명사 사용에 관한 문법적 규범도 변화하면서, 성경 번역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Stewart)는 예를 들어 여러 신학교 및 교회들에서 사용되는 『신개정표준역 성경(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의 제작 과정에서 성별 대명사의 사용은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Stewart, 2007: 296). 더불어 가부장적 은유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지칭하는 언어로 바꾸려는 『포괄적 언어 독서집(An Inclusive-Language Lectionary)』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의 포괄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격화되었다(Stewart, 2007: 297). 포괄적 언어 사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남성으로만 정의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적 영(spiri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피터슨(Michael L. Peterson)은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남성적 은유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성경 왜곡이라고 비판하였다(Peterson, 2003: 236).

본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 언어 사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필자는 남성적 언어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종교교육에서 사용하는 편향적 언어가 하나님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교교육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 아이들의 인터뷰를 인용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자들의 논증을 비교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종교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형성하는데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성 중립적인 대명사 구조¹⁾를 가지고 있음에도, 종교 언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1) 영어로는 ‘그/그녀(he/she)’ 혹은 ‘그 자신/그녀 자신(himself/herself)’ 같은 대명사가 성별을 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God)’ 혹은 ‘하나님 자신(Godself)’을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한글에서는 ‘그’, ‘그분’, ‘하나님’ 자체가 성별을 지시하지 않는다.

표현이 거의 유일하게 반복된다. 이러한 언어 구조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형성 및 영적 관계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언어 구조보다 담론의 전통성과 설교 패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포괄적 언어의 가능성은 문법적 언어보다는 담론 전환(discursive shift)에 달려 있다. 예배문서, 설교 언어, 기도문, 찬송가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비유(예: 포옹하는 어머니, 친구 같은 동행자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II. 언어와 사고의 상관관계

1. 언어와 사고의 상관관계

언어가 우선주의적 조형력은 아니지만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언어상대론(linguistic relativity)의 약한 형태는 현대 인지과학과 언어학에서 여전히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이론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인간이 공통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을 타고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일 뿐 사고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실제로 번역 가능성과 언어 간의 의미 전달이 가능한 점을 들어, 촘스키는 언어가 사고의 틀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부정한다(Chomsky, 1965:4-6). 그러나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언어 사용 방식이 사람들의 주의(attention), 분류 방식(categorization), 기억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언어학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약한 형태의 언어상대론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레라 보로딧츠키(Lera Boroditsky)는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차이를 실험적으로 분석하며, 언어가 인지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Boroditsky, 2011: 62 - 65). 예를 들어, 러시아어 화자들은 ‘진한 파랑(siniy)’과 ‘연한 파랑(goluboy)’을 구분하는 언어적 구분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영어 화자보다 색상 구별 반응 속도가 빠르다(Boroditsky, 2010).

이와 유사하게 스티븐 레빈슨(Stephen C. Levinson)은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공간 좌표계 사용 양상을 비교하며, 언어 구조가 공간 인지, 기억력, 주의 기제 등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Levinson, 2003: 109). 그는 언어가 단지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념 형성과 인지 구조를 조형하는 도구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Levinson, 1996: 188). 이들의 연구는 언어가 세계 인식 방식의 차이를 유도한다는 언어상대론의 핵심 명제를 뒷받침하며, 종교교육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 언어가 신 개념 형성과 영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심리언어학적 연구들은 단지 일반 인지 영역에 그치지 않고, 신 개념 형성과 영적 정체성(spiritual identity)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종교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언어는 학습자의 신학적 상상력뿐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하는지를 결정짓는 심리적 기제

(psychological mechanism)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언어 사용이 개인의 정체성, 신념, 행동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이정현, 박현아, 송상현(2022)은 「코로나19 언어 사용에 대한 전산언어학적 비교분석」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언어를 비교 분석하며, 특정 용어 선택이 독자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Lee, Park, & Song, 2022). 이는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틀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엄선미와 이은주는 「청각장애인의 화용언어능력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언어 능력의 유무가 사회적 통합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였다. 이들은 언어 사용이 단순한 기능적 소통을 넘어 사회적 주체성 형성과 직결된다고 본다(Yeom, & Lee, 2020). 이처럼 최근의 국내 연구들은 언어가 사회적 태도, 인식 구조,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조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교교육에서도 언어가 신앙 형성과 하나님 이미지 구성에 중대한 교육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포괄적 언어 사용 논쟁의 두 축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별 배타적 언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포괄적 언어 사용에 반대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된 남성 언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 리치먼드 유니언신학교의 성서와 설교학 교수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는 하나님이 자신을 남성 언어(그녀는 “그분[Himself]”이라는 표현을 선호함)로 계시하셨다고 주장한다(Achtemeier, 1992: 5).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악트마이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왕(King), 아버지(Father), 재판관(Judge), 남편(Husband), 주인(Master) 등과 같은 남성적 이미지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본다(Achtemeier, 1992: 5).

가렛 그린(Garrett Green) 역시 악트마이어의 주장을 지지하며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묘사하고 부르고 경배할 적절한 언어는 남성 언어다”라고 주장한다(Green, 1992: 64). 그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등의 남성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는 단순한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부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남성 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이미지를 배제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성별화된 은유 사용 그 자체의 문제이다. 스튜어트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남성 이미지로 계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고대 유대교가 경쟁하고 있었던 타 종교들이 여성 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이들과 구별을 두기 위해 남성 이미

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Stewart, 2010: 276). 이 주장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유로 남성 언어 사용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튜어트는 저명한 신학자 로즈메리 루터(Rosemary Ruether)의 견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녀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여성 이미지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배제해왔고, 그 결과 여성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언어에서 제거되었다고 말한다(Stewart, 2010: 279)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중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소피아 / 셰키나(Sophia / Shekinah)’ 개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필로의 로고스 개념으로 대체되었다(Stewart, 2010).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여성 이미지를 삼위일체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었다. 이와 같은 언어의 한계를 다음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 비포괄적 언어 사용의 한계

로즈메리 루터(Rosemary Radford Ruether)는 비포괄적 언어 사용에 대해 두 가지 주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남성 이미지는 가부장적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반영하며, 이러한 하나님 이미지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Stewart, 2007: 297). 하나님의 이미지와 사회 구조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루터가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즉, 남성적 언어는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이차적이거나 종속적인 위치로 만든다는 것이다(Stewart, 2010: 277).

루터는 “하나님이 한 성의 이미지, 특히 지배 계급의 남성 이미지로 투영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차적으로 지닌 존재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Stewart, 2010: 277).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집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차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만든다(Stewart, 2010: 278). 때로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착각이 들도록 한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주체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종종 기독교의 전면적인 사역에서 배제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 예컨대 ‘왕’, ‘아버지’, ‘남편’, ‘재판관’, ‘주인’과 같은 표현은 악트마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언 램지(Ian Ramsey)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남성 직업 중심 은유 외에도, 가족, 국가, 자연과 관련된 은유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Ramsey, 1964: 59-60). 램지는 어떤 은유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불충분해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은유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덧붙인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가 일반화된 것은 단지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본질적으로 적합한 은유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Ramsey, 1964: 59-60). 그는 ‘아버지’라는 은유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발달적 함의를 끌어낼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Ramsey, 1964: 59-60).

램지의 주장은 루터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지배 계층이 특정 은유(예: 아버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은유가 마치 보편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 은유가 널리 퍼진 것은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지배 담론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램지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은유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Ramsey, 1964: 60). 이러한 관점은 성경이 쓰인 시대와 오늘날 모두가 가부장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결국 지배적인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일 때, 그 사회에서 생성되는 하나님 은유 역시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남성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성경 역시 특정 맥락 안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언어가 유일한 표준이 되어 하나님을 특정 성으로만 인식하게 만들 때 발생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이상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언어는 그러한 신성을 왜곡 없이 담아내기 위해 다층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포괄적 언어 사용에 찬성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학자들 모두, 하나님은 성별을 초월한 존재임에 동의한다(Achtemeier, 1992: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언어나 이미지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성적 하나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에서는 아직 종교교육에서 언어 사용이 신앙 형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종교교육의 형성적 측면에서 포괄적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겠다.

III. 종교교육에서 포괄적 단어 사용의 형성적 측면

1. 영(null) 교육과정과 언어 사용

미국 교육학계의 권위자였던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Eisner)가 제안한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은,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언급되지 않는 내용 또한 학습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이즈너는 “무지는 단지 중립적인 공백이 아니라, 어떤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제약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말한다(Eisner, 1985: 97). 즉,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간주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학생의 인식 세계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미지로만 묘사하고 가르치는 교육은 단순한 언어 선택을 넘어선 영 교육과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학습자에게 하나님은 ‘남성적인 존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며, ‘다른 방식의 하나님 표현’은 중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적 속성, 권위 이해, 영적 정체성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결국, 특정 성 역할이나 사회적 위계를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교육적 구조를 낳을 수 있다.

종교교육 현장에서 이는 하나님은 권위와 명령, 심판의 기능으로만 인식되고, 돌봄, 공감, 동행의 속성은 간과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여성이나 비주류 집단은 신앙의 주체가 아닌, 수용자 혹은 순종자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감정적·관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위계적으로 인식하는 틀 속에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은폐된 언어는 곧 은폐된 교육과 연결된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하나님을 말하느냐는 결국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단지 ‘언어적 표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형성과 공동체 인식, 성 역할 교육 전반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설계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표면적 교육과정뿐 아니라, 은폐된 교육 메시지까지 재검토하고 갱신하는 신학적 상상력과 언어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영 교육과정과 위계적 하나님 언어가 지닌 이론적 한계를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언어 사용이 학습자의 신 개념 형성과 영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 경계 밀기

데이브 시노스(Dave Csinos)의 책 *Little Theologians*은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의 네 개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회를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Csinos, 2020). 이 책은 어린이들이 신학을 배우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신학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학자들임을 강조한다. 시노스는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그 그림을 바탕으로 신학적 대화를 나누었다. 시노스의 연구 목적은 어린이들의 신학적 상상력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어린이들의 신학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의 연구는 교육자의 언어 사용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미지에 도전하는 질문을 하거나 그것을 확장하려는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열려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열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할 경우, 학생들은 신비로움과 해석의 여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시노스의 책에 등장하는 제이컵(Jacob)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마도(maybe)”, “그런 것 같아(it seems)”, “가끔(sometimes)”, “내 생각엔(I think)”과 같이 개방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Csnions, 2020: 38).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상징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응한 다른 친구 에녹(Enoch)이 하나님을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묘사하자 그 그림을 본 제이컵은 “음, 아마 하나님이 백인이라서...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응답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을 무지개 색으로 채색한 후에는 “무지개 색 몸인 것 같아”라고 말했다. 얼마 후 에녹이 하나님이 수염이 있을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수염이 없으셔... 내 생각엔”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는 단순한 불확실성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개방성과 해석적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확정정보보다 신비와 가능성의 여지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Csinos, 2020: 38).

이처럼, 학생들의 기존 신 개념을 열린 질문과 상징 탐색을 통해 학생 스스로 언어와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환경은, 하나님을 기존의 전통적으로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열린 신비로 경험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확장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신앙의 해석자가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3. 대안적 언어들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 단일한 성별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은유적 표현들이 풍부하게 등장한다. 지혜(Sophia)(Prov 8; Luke 7:35), 불의 신현(Exod 3; Acts 2), 닭(Matt 23:37), 바위와 요새(Ps 18:2), 목자(Ps 23), 빛(John 8:12) 등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더욱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로 환원하는 언어 사용을 넘어서, 돌보는 존재, 보호하는 존재, 인도하는 존재, 임재하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다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이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거의 유일하게 반복되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이미지 안에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 본문에 내재된 다양한 하나님 은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친밀함과 신비로움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신학적 상상력을 회복하는 길이자,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으로 구성하는 실천적 방향이 될 수 있다.

샬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친구(friend)’나 ‘연인(lover)’, 그리고 ‘어머니(mother)’와 같은 다른 하나님 은유를 제안한다(McFague, 1982: 72-72, 76-77). 그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은 “모든 창조 세계의 충만을 위한 포용적이고 비위계적이며, 전복적인 복음 이해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cFague, 1987: 60). 그녀는 초월보다는 내재, 권위보다는 양육, 통제보다는 관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페이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언제나 은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의 언어로는 직접 기술할 수 없고, 오직 유비(analogy)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Stewart, 2010: 278). 그녀는 『하나님의 모델들(Models of God)』이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타자이며, 인간은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한 언어로 신성을 투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McFague, 1987: 42). 맥페이그의 접근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불가지론적 입장을 동반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도 있다. 즉, 인간의 인식 가능성을 너무 제한할 경우,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해석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 사용은 종교교육에서 하나님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포괄적 언어 사용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인류 전체를 포괄하고,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한 사회적 통념을 해체하며, 인간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포괄적 언어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남성 이미지 자체를 전복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성경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여신(Goddess) 중심의 자연종교로 대체하고자 한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이 존재했다(Stewart, 2010: 280). 이들은 하나님을 양성적(androgynous) 존재로 표현하는 것조차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루터와 제3물결 신학자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바는 ‘어머니’를 ‘아버지’ 대신에 놓거나, 단순히 양쪽을 병기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성별중심 질서가 형성되고,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즉, 여성 이미지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나 대체하는 것은 억압의 언어 구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해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고정관념을 유지하게 된다. 포괄적 언어의 목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루터가 말하듯, 하나님 언어의 확장은 “인간 존재의 잠재력 자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Stewart, 2007: 298).

4. 실천 가능성 제안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은유를 종교교육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 교체를 넘어서 세대 맞춤형, 발달 단계에 기초한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유아 및 아동 세대에게는 시각적 스토리텔링, 그림책, 창의적 활동(예: ‘어미 닭 하나님’을 그리기, ‘빛으로 걸어가기’ 체험 놀이)을 통해 상상력 기반의 하나님 이미지를 확장시킬 수 있다. 포괄적 하나님 언어의 지속적 실천이 아동의 신 이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 필자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만났던 한 신학생 부부는 포괄적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와의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하나님 언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왔다. 하나님을 그려보는 활동에서 묘사한 이미지는 전통적 ‘성인 남성’이 아니라, 주변을 환히 비추는 밝은 빛이었다. 이는 하나님을 인간의 성별 범주 안에 가두지 않고,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의 힘을 보여준다.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언어는 단지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 정체성과 하나님 상(像)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사례가 모든 상황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언어 사용이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젊은 세대의 하나님 이해를 열어 주는 실천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에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 반추능력이 발달하므로, 다양한 은유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며 자신의 신앙 언어를 스스로 구성하도록 돕는 성경 은유 워크숍이나 비판적 성경 읽기 수업이 효과적이다. 청소년기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필자가 섬겼던 캐나다의 한 청소년부에서 언어와 신앙형성에 대한 주제로 신학적 토론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신학적 언어인가를 질문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하나님 은유, 예를 들어 ‘빛’, ‘동행자’, ‘지혜’를 함께 탐구하였다. 이 활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의 개인적 신앙 경험과 감정적 기억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특히 몇몇 청소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가정 내 트라우마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재구성하면서 이전에는 다가가기 힘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언어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신앙의 가능성을 여닫는 영적 통로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무엇보다, 언어와 은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청소년들의 실존적 경험과 만날 때, 신학은 이론이 아닌 회복적 실천(reparative practice)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교육적 순간이었다. 이와 같은 실천은 오늘날 다양한 배경을 지닌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청년과 성인 세대에게는 전통적 신앙 언어에 익숙한 만큼, 다양한 은유가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소그룹 목상자료, 설교 자료, 감정-경험 중심의

신앙 간증 나눔 등이 적합하다. 장년 및 노년 세대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를 중심으로 회고적 삶의 신학 만들기, 성경 인물과 은유 연결하여 자신의 삶 해석하기와 같은 활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각 세대의 인지 발달과 영적 요구에 맞춘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더 이상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앙 경험을 나누는 통로로 회복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종교 담론의 언어와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포괄적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남성적 은유 표현 및 삼위일체의 ‘아버지’로 계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포괄적 언어의 사용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한다고 본다.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다수의 신학자들은 포괄적 언어 사용이 하나님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정성별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온전히 반영하는 언어이다.

결국, 포괄적 하나님 언어는 단지 성 중립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발달과 신 개념 형성, 나아가 신앙의 경험과 공동체 내의 영적 주체성 형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영성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 언어의 다양성은 영성 발달의 문을 넓히며,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존재 가능성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신학적 도구가 된다. 본 논문은 종교교육에서 포괄적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앞으로 포괄적 언어의 사용은 사회 구조의 부조리를 약화시키고, 여성과 소외된 이들의 포용과 해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한국 교회는 포괄적 하나님 언어 논의에 있어 서구의 이론 수입에 그치는 것을 넘어, 한글의 언어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신학적 연구 및 실천이 이뤄진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Inclusive Language Lectionary Committee. (1983-1985). *An Inclusive-language Lectionary: Readings for Years A, B, and C*.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1989).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Bible Society. (1962). *The Holy Bible, Korean Revised Version*. Seoul: Korean Bible Society.

[Secondary Sources]

- Achtemeier, E. (1992). Exchanging God for “No God”: A Discussion of Female Language for God. In A. F. Kimel Jr. (Ed.), *Speaking the Christian God: The Holy Trinity and the Challenge of Feminism* (pp. 1 - 17).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 Boroditsky, L. (2010, July). *How Language Shapes the Way We Think [Video]*. TED Conferences. Retrieved 2024. 5. 24., from https://www.ted.com/talks/lera_boroditsky_how_language_shapes_the_way_we_think
- Boroditsky, L. (2011). How Language Shapes Thought. *Scientific American*, 304(2), 62-65.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Csinos, D. (2020). *Little Theologians: Children,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ological Meaning*.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Green, G. (1992). The Gender of God and the Theology of Metaphor. In A. F. Kimel Jr. (Ed.), *Speaking the Christian God: The Holy Trinity and the Challenge of Feminism* (pp. 60-80).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 Lee, J. H., Park, H. A., & Song, S. H. (2022). A Computational Linguistic Comparative Analysis of Language Use in COVID-19. *Language and Linguistics*, 93, 151-180.
- Levinson, S. C. (1996). Relativity in Spatial Conception and Description. In J. J. Gumperz & S. C. Levinson (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pp. 177-20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C. (2003). *Space in Language and Cognition: Explorations in Cognitive Divers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Fague, S. (1982).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McFague, S. (1987).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Peterson, M. L. (2003). *Reason & Religious Belief: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Religion*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wart, D. (Ed.). (2006). *Exploring the Philosophy of Religion*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Stewart, D. (Ed.). (2016). *Exploring the Philosophy of Religion*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Yeom, S. M., & Lee, E. J. (2020). Research Trends on Pragmatic Language Ability of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rom 2000 to 2020.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6(2), 81-104.